67 日韓の古地名研究

(일한의 고지명 연구)

이 책은 金澤庄三郎(가나자와 쇼사부로) 박사의 저술인데 씨는 1872년 大阪(오오사까)에서 태어났다 제3고등학교를 거쳐 東京帝國大學(동경제국대학)을 졸업했다 東洋語學(동양어학)의 비교연구에 뜻을 두고 대학 재학중에 北海道(북해도)로

20×10 MooKwx

건너가 아이누어를 연구 했다 그성과는 <아이누어 회화사전> 이란 소책자로 출판 되었다 1896년 대학을 졸업한후 문부성 제1회 동양 유학생으로서 우리나라에 유학을 왔다 3년간 있으면서 조선어 연구에 전념 했다 그후 문부성 국어조사회 위원으로서 琉球(유구)에 파견 되어 南道(난도)의 언어를 연구 하기도 했다 이어 1913년에는 조선총독부의 요청으로 러시아령(領) 시베리아

와 만주(滿洲)와 몽고 각지를 순방하면
서 러시아어 만주어와 몽고어를 연구하
기도 했다
 또한 중국어와 인도어를 연구하여 이
로바 <동양어학>의 기초를 다졌다
 또한 金澤(가나자와) 박사는 그동안 東京
帝国大學(동경제국대학)을 비롯하여 東京
外国語學校(동경외국어학교) 国學院大學
(국학원대학) 駒澤大學(고마자와대학) 및
鶴見女子短期大學(쓰루미 여자단기대학)

등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다
1967년 95세로 세상을 떴다
이 책의 2부에는 〈日韓同祖論(일한동조론)〉
이 있다 이것은 씨(氏)가 1929년에 발표
한 논문인데 당시 저자를 유명하게 한
논문이다 씨의 동조론은 민족사적 입장
에서의 연구가 아니고 言語(언어)를 통한
같은 뿌리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옛날의 조선은 문명국이었다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 글은 일본 고대 문명의 많

은 부분이 조선에서 건너왔다 것을 언어의 측면으로 증명하고자 한 것이다

더욱 그는 고대지명 가운데 조선말 계통의 지명(地名)을 고대 조선말과 내외 史書(사서)를 인용하면서 해명하려 했다

<同祖論(동조론)>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다 일제시대 일본은 六堂(육당) 崔南善(최남선) 선생을 만주에 있는 建國大學(건국대학) 교수로 임명하고 <日韓

同祖論考(일한 동조론)〉을 증명하라는 압력을 준 적이 있다. 우리과 일본은 같은 뿌리가 아닌데 이것을 증명하라니···. 기가 막혀 연구를 거절하 교수직을 그만 둔 일이 있다

제3부는 1949년에 작성한 논문인데 〈지명의 연구〉라 하여 한·일 지명에 국한하지 않고 주변의 여러 나라 언어에 관한 연구를 집성한 것인데··· 어쨌든 이 책은 한일 고지명 연구에 있어서는 금과옥조적 존재이다